

#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과 노후준비

## Determinants of Part-Time Work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of Older Women

김소희\*, 박미현\*\*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o-Hee Kim(niki88@daejin.ac.kr)\*, Mee-Hyun Park(swpmh@gcu.ac)\*\*

###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 실태와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고령 여성 중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에 따른 노후준비수준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직전 일자리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이 노후준비수준 항목 중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과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 | 중고령 여성 | 시간제 일자리 | 노후준비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utline the characteristics of part-time work among older women and examine what determines whether an older woman is employed part-time.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s of later life preparation of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among older women and to suggest thereby the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to develop program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part-time employment of older women. The results show that former job significantly influences part-time employment of older women. Th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later life preparation of part-time workers, including household income, wage income, and public pension,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full-time workers among older women.

■ keyword : | Older Woman | part-time Work | Preparation for Later Life |

## I.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 중고령층을 위주로 시간

제 일자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이 전보다 더 많은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한데다 청년실업 문제로 자녀의 독립이 늦어져 55세 이상 여성들이 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1]. 2013년 3월 통계청의 경

접수일자 : 2014년 11월 26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5일

교신저자 : 박미현, e-mail : swpmh@gcu.ac

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시간제 근로자의 73.1%가 여성이며,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2.7%로 나타났고,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져 시간제 일자리는 중고령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유입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이러한 중고령층의 시간제 일자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노동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는 시간제 일자리가 점진적 퇴직 준비와 인생 이모작의 기회가 될 수 있고[3] 은퇴소득원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런 점에서 볼 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13년 노인빈곤율이 48.1%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며, 특히 노인 1인가구의 빈곤율은 70%를 넘는[5]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인력부족을 완화하고, 빈곤노인들의 수입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지금의 중고령층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자녀교육과 집마련, 부모부양을 위해 일하였으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퇴직후 공적연금은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자녀들의 부양의식은 약해져 자녀세대와 별거하는 고령가구의 비율이 68.1%[6]에 달하고 있다. 더우기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로 인해 많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고, 공적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여 고령자에 대한 복지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근로를 통한 ‘자기부양’이 노후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통계청[7]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66.2%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은퇴과정에서 소득을 올리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9]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은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열악한 일자리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9],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10], 최근 10년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에 취업애로계층인 중고령여성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생계보장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순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만이 아닌 임금, 복지, 연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일가정양립 등의 제약이 큰 젊은층 기혼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전체 여성층의 시간제근로 현황을 다루고 있어 가장 취약계층인 ‘중고령 여성’에 초점맞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정도를 전일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점검하고 노후소득원으로서의 시간제 일자리의 역할을 고찰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고령 여성과 시간제 일자리

그동안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전체 중고령층의 고용현황과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 중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로는 장혜경·김영란[13]의 “고령사회대비 여성노인 고용활성화 방안”과 박성정 등[14]의 “고령층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방안”연구, 손정현·이영민[14]의 “중고령 여성의 취업 결정요인분석” 연구 등 몇

몇 연구가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최근에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2][7], 그 외에는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의 결과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청년층, 여성, 특히 기혼여성 그리고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 특히 2004년과 2013년 사이 여성 임금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증가한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연령층[2]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65세 이상 시간제 여성들이 증가하였다[17]. 이렇게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는 데는 서비스업의 발전, 부가적인 소득의 필요성,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령기의 시간제 일자리는 점진적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선택권으로 여겨지고 있으며[4][18], 재정적 혜택뿐 아니라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력감이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혜택까지 제공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17].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여성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저임금근로자 일하고 있고[2], 사회서비스업 등 특정산업분야와 저숙련 직종에 편중되어 있어 중고령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안정·불완전 일자리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9].

최근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은 은퇴후 소득 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고령 여성들에게 ‘기회의 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전일제에 비해 열악한 현실과 공적연금 가입과 최저임금의 보장 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참여계층 중 가장 취업에 로계층인 중고령 여성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시간제 일자리의 특성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령’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의 준고령자(50-54세)와 고령자(만 55세 이상)를 통칭하여 50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일컬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중고령 여성을 50세 이상 연령층의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

는 ‘파트타임 근로’나 ‘단기간 근로’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간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시간제 일자리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일자리’로 규정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통계자료도 시간제 근로가 ‘평균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16]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주 36시간 미만의 근로자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를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 2.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더욱이 중고령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며, 사실상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Gannon & Roberts[4]의 연구와 함께 국내에서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로 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연구자에 따라 분류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시간제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일자리 특성을 포함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는 일반적으로 연령, 결혼상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전 일자리형태, 가구소득, 주택소유 등이 포함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은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시간제 결정요인에 미치는 연령효과에 대해서는 U자형을 나타내 청년층에서 시간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16]. Gannon & Roberts[4]의 연구에 의

하면 영국 중고령자들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시간제 일자리를 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결혼상태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지미·안주엽[12]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유배우자 여성이 시간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안미보·반정호[19]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단시간근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Gannon & Roberts[4]의 연구에서 결혼상태는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도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안미보·반정호[19]의 연구에서는 비가구주 여성인 경우 단시간근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고령자 고용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로, 이승렬·조수기[20]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Gannon & Roberts[4]의 연구에서는 중고령자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인적자본인 학력에 대해서 Gannon & Roberts[4]의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시간제 일자리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지미·안주엽[21]의 연구에서는 대졸자에 비해 고졸 미만과 고졸자가 시간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미보·반정호[19]의 연구에서는 대졸자 대비 중졸이하나 고졸에서 단시간근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일자리형태는 남녀를 불문하고 현재의 고용상태를 결정하는 의미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결혼한 여성의 경우 직업경력도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가구소득은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데, Gannon & Roberts[4]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 중고령자들은 다른 가족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소유도 시간제근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지미·안주엽[12]의 연구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비해, 전세 또는 월세에서 시간제 일자

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일자리 특성도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의 확대는 기업의 노동수요에 기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은 외부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자체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간제 고용을 활용하게 된다[22]. 업종은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안미보·반정호[19]의 연구에서 여성 단시간근로자는 제조업에 비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농림어업광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의 경우 단순노무직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단시간근로의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제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사업장 규모도 중요하다. 기업이 영세할수록 임금 대비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간제 고용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다시 시간제 일자리의 저임금 특성으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22]. 안미보·반정호[19]의 연구에서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일수록 여성 단시간근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이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변인들인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전 일자리형태,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가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분석하고자 한다.

### 3.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23], 일반적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준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도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판단에 따라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도를 뜻하는 경제적 노후준비[24]는 다른 노후준비 즉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노후준비 등 생활전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 중에서 핵심[26]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비율은 높으며, 특히 고령여성의 노후준비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이는 충분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년층이 두렵지 않고,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존의 사회보장체제와 개인의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적절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적으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노후에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23]. 실제로 권혁창 등[27]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59.3%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고령자의 경우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남성고령자의 유배우율은 85% 정도인 반면, 여성고령자의 유배우율은 39.4%에 불과하고[28], 또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성에 비해 공식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왔던 현실에서 홀로 된 여성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중고령자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과 자산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2][29][30]. 또한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특히 월평균수입이 높은 경우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이외에 노후의 중요한 소득원인 공적연금을 보유한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았고, 개인연금도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32].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는 매우 미흡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5년 기준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격년으로 추적 조사한 자료로, 중고령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중고령기의 임금근로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 자료에서 50세 이상 중고령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총 129명으로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변수정의 및 측정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시간제 일자리 여부로,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의 이분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전 일자리형태,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를 포함하였고, 일자리 특성에는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를 포함하였다.

표 1. 측정변수 및 변수정의

특성	측정변수	변수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만나이
	결혼상태	유배우/무배우
	가구주여부	가구주/비가구주
	건강상태	주관적 5점척도
	교육수준	초졸이하/중졸/고졸이상
전일자리형태	가구소득	시간제/전일제/비임금근로/비취업
		총가구소득 - 본인근로소득(로그값)
일자리 특성	업종	농림어업/광업/제조업/도소매/숙박 및 음식점/서비스업(공공행정/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기타(통신업 등)
	직종	서비스/단순노무직/기타(관리자, 전문직 등)
	사업장규모	5인미만/5-10인미만/10-29인미만/30인 이상
노후준비	경제적 독립, 가구재산, 주택소유, 가구소득, 월평균연금, 공적연금보유, 개인연금보유, 저축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연구대상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시간제 일자리 여부, 즉 시간제와 전일제로의 선택확률에 대한 영향요인의 방향과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전일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 평균비교분석(t-test)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전 일자리형태,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29)

변수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연령대	50대	47	36.4
	60대	40	31.0
	70대이상	42	32.6
	평균	64.3세	
결혼상태	유배우자	76	58.9
	무배우자	53	41.1
가구주여부	가구주	70	54.3
	비가구주	59	45.7
건강상태	매우 안 좋음	1	0.8
	안 좋음편	35	27.1
	보통	54	41.9
	좋은편	39	30.2
	매우 좋음	-	-
교육수준	초졸이하	79	62.7
	중졸	30	23.8
	고졸이상	17	13.5
직전 일자리형태	시간제임금근로	15	11.9
	전일제임금근로	36	28.6
	비임금근로	40	31.7
	비취업	35	27.8
가구소득	연평균	1,623만원	
주택소유 여부	소유	55	42.6
	미소유	74	57.4

일자리 중고령여성의 평균 연령은 64.3세로, 50대와 60대, 70대이상 연령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41.1%로, 국민연금연구원[27]의 자료에서 50세 이상 전일제 여성의 무배우율이 29.7%로 나타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성지미·안주엽[12]의 노동패널자료 분석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미혼집단에서, 여성의 경우 기혼유배우 여성에게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시간제 일자리의 전체 여성 중 중고령층에서는 오히려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주여부에 있어서도 중고령 여성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54.3%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건강상태는 ‘보통’ 또는 ‘좋은 편’이라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하여 시간제 일자리 여성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졸 이하가 62.7%로 저학력자가 매우 많은데, 성지미·안주엽[12]의 노동패널자료 분석연구에서 전체 시간제 일자리 여성 중 고졸미만의 학력자가 29.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중고령 여성의 저학력자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여성의 직전 일자리형태를 살펴본 결과 비임금근로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한 경우가 31.7%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 자영업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짐작케 하였다. 그리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경우가 28.6%이고, 비취업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한 경우도 27.8%나 되었는데, 이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에서 은퇴로 가는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취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임금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은 연평균 1천623만원(월 135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여부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57.4%로, 일반 고령자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73%[28]임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여성의 자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응답자의 일자리 특성으로 현일자리의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의 일자리 특성 (n=129)

변수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업종	농림어업/광업/제조	14	11.9
	도소매/숙박/음식	15	12.7
	서비스업	76	64.4
	기타	13	11.0
직종	서비스	15	12.4
	단순노무직	94	77.7
	기타	12	9.9
사업장 규모	5인미만	44	43.1
	5-10인미만	20	19.6
	10-30인미만	23	22.5
	30인이상	15	14.7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업종으로는 공공행정·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64.4%로 월등히 많았다. 2012년 기준 시간제 일자리 182.6만개 중에서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5%, 음식숙박업은 15.5%, 공공행정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이 34.5%를 차지[10]한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중고령 여성의 서비스업 종사 비율은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매우 높다. 시간제 일자리의 직종은 단순노무직이 77.7%로 대부분이다. 이러한 저숙련직종 비율이 높은 것은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 중 초졸이하의 지학력자가 많은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시간제 일자리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43.1%로 가장 많아 열악한 근로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 2.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 분석결과

다음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공급의 측면인 중고령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수요 측면의 일자리 특성 요인들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들이, 모형II에서는 일자리 특성 변인들이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설명력을 분석하였고, 마지막 모형II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요인 모두를 한꺼번에 투입하여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각 특성 요인이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간의 기본적인 관계와 다중공선성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상태변수와 가구주여부, 주택소유여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sup>1)</sup> 가구주여부와 주택소유여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변수를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를 보면 모두 3.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만 투입한 모형I의 시간제근로 결정에 대한 Nagelkerke  $R^2$  값은 13.6%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의 설명력이 유의미(카이제곱값 41.551,  $p < .001$ )하게 높았다. 일자리 특성 요인을 투입한 모형 II의 설명력은 12.6%로 모형 적합도(카이제곱값 42.156,  $p < .001$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들의 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과 일자리 특성 요인이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른 요인 통제시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일자리 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III을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카이제곱값 61.400,  $p < .001$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이 각 요인들의 설명력을 합산한 설명력(26.2%) 보다 작은 19.6%라는 것은 요인들 간의 중첩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중첩효과로 인해 각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가 적어질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각 모형에서 영향을 주던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인들로 변화될 수 있다.

모형III의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모형I과 모형II와는 달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의 영향력은 없어졌고, 일자리 특성 중 통계적 유의미성이 미약했던 직종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전 일자리형태는 여전히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

1) 결혼상태와 가구주여부의 상관계수는 -0.507, 결혼상태와 주택소유여부는 -0.567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Exp(B)	B	Exp(B)	B	Exp(B)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46*	1.047			.032	1.033
	결혼상태						
	유배우자	.006	1.006			.053	1.054
	무배우자(기준)						
	건강상태	-.014	.986			-.002	.998
	교육수준						
	초졸이하	.295	1.343			.349	1.417
	중졸	.397	1.488			.410	1.507
	고졸이상(기준)						
	직전일자리형태						
시간제임금근로	1.486**	4.421			1.555**	4.734	
비임금근로	.494	1.638			.455	1.577	
미취업	1.166***	3.210			1.133**	3.106	
전일제(기준)							
가구소득(log값)	-.051	.950			-.056	.946	
일자리 특성	업종						
	도소매숙박음식			-.003	.997	.408	1.503
	서비스업			.906**	2.476	1.075**	2.929
	기타			.889+	2.433	1.186*	3.274
	농림어업광업제조업(기준)						
	직종						
	서비스			.045	1.046	-.332	.718
	단순노무직			.623+	1.864	-.039	.962
	기타(기준)						
	사업장 규모						
5인-9인			-.489	.613	-.356	.700	
10인-29인			-.412	.662	-.226	.798	
30인 이상			-1.076**	.341	-.772*	.462	
5인 미만(기준)							
상수항	-4.113	.016	-1.517	.219	-3.683	.025	
N	423		423		423		
2Log-Likelihood	453.450		503.079		433.601		
Model Chi-square	41.551***		42.156***		61.400***		
degree of freedom	9		8		17		
Nagelkerke R <sup>2</sup>	.136		.126		.196		

일제 임금근로자에 비해 시간제 임금근로자는 시간제 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4.73배(p<.01)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미취업자는 3.11배(p<.01) 높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전일제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전일제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시간제로 일했던 근로자는 또 다시 시간제로 근로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또한 미취업자들이 취업할 경우 전일제로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

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의 대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자리 특성 요인 중 모형II에서 영향을 주던 업종과 사업장 규모는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농림어업·광업·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시간제 일자리 고용 가능성이 약 2.93배(p<.01)가 높았고, 기타업종은 약 3.27배(p<.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 5인 미만에 비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가능성이 0.46 배(p<.05)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가 시간제 일자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안미보·반정호[19]와 류정진[2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모두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근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들 통제시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유의미한 개별 변인은 직전 일자리형태, 업종, 사업장 규모이며, 이 중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별 변인은 직전 일자리형태로 확인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중 현 시간제 일자리 직전의 취업형태가 전일제 임금근로일 경우보다 시간제근로일 경우와 미취업일 경우에 중고령 여성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중고령여성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전일제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로의 유연한 전환의 형태보다는 전일제 일자리로의 낮은 유입가능성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특성의 개별 변인에 있어서는 농림어업·광업·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기타 업종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에 비해 30인 이상인 경우는 시간제 일자리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 정도를 경제적 준비에 초점을 맞춰 경제적 독립여부와 가구재산, 주택소유여부, 가구소득, 월평균임금, 공적연금보유여부, 개인연금보유여부, 저축여부를 살펴 보았으며, 이들의 수준에 대한 비교를 위해 전일제 일자



리와 집단비교( $X^2$ ,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5.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도

변수	구분	시간제	전일제	전체
경제적독립 ( $x^2=5.944$ , $p=.015^*$ )	독립	60(46.5)	195(59.1)	255(55.6)
	미독립	69(53.5)	135(40.9)	204(44.4)
가구재산 ( $F=2.890$ , $p=.314$ )	평균	4,892만원	6,309만원	5,899만원
	소유	55(42.6)	133(40.3)	188(41.0)
주택소유 ( $x^2=.209$ , $p=.674$ )	미소유	74(57.4)	197(59.7)	271(59.0)
	평균	1,623만원	2,178만원	2,028만원
월평균임금 ( $F=7.627$ , $p=.000^{***}$ )	평균	48만원	96만원	84만원
	보유	33(25.6)	150(45.5)	183(39.9)
공적연금 ( $x^2=15.279$ , $p=.000^{***}$ )	미보유	96(74.4)	180(54.5)	276(60.1)
	보유	5( 3.9)	17( 5.2)	22( 4.8)
개인연금 ( $x^2=0.331$ , $p=.808$ )	미보유	124(96.1)	313(94.8)	437(95.2)
	저축	18(14.0)	60(18.2)	78(17.0)
저축 ( $x^2=1.176$ , $p=.172$ )	저축 안함	111(86.0)	270(81.8)	381(83.0)
	전체	129(100.0)	330(100.0)	459(100.0)

연구결과 [표 5]와 같이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경우 경제적 독립여부( $X^2=5.944$ ,  $p=.015$ )와 가구소득( $F=2.910$ ,  $p=.015$ ), 월평균임금( $F=7.627$ ,  $p=.000$ ), 공적연금보유여부( $X^2=15.279$ ,  $p=.000$ )면에서 전일제 일자리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전일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과 노후준비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독립’면에서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경우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일제 일자리(40.9%)보다 월등히 많은 비율이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운 상태임을 나타냈다. 중고령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면에서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가구소득은 연평균 1천623만원(월 13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일제 중고령 여성의 가구소득이 연 2천178만원(월 181만원)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월평균임금’을 보면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월 48만원으로 전일제 일자리(96만원)의 절반수준 밖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가족원을

통한 수입수준이 낮고 본인의 근로소득 역시 낮아 이를 합해도 추가가구소득은 월 183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공적연금보유여부’에 있어서도 연금을 보유한 경우가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경우 25.6%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공적연금 가입비율이 20.7%[10]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전일제 일자리의 공적연금보유비율이 45.5%인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비율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중고령 여성의 ‘직전 일자리형태’가 시간제거나 비임금근로, 비취업상태에서 현재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아 공적연금 가입기회가 적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전일제에 비해 경제적 독립면에서나 가구소득, 월평균임금, 공적연금보유 면에서 모두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은 훨씬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가구재산이나 주택소유, 개인연금보유, 저축면에서는 전일제 일자리의 중고령 여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가구재산은 4천 892만원정도였으며 전일제 일자리(6천 309만원)보다 낮았다. 주택소유여부를 살펴보면,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42.6%로 전일제의 소유비율(40.3%)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노령층의 73%[28]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소유율로서 두 집단 모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며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개인연금 보유여부에 있어서도 시간제 일자리 여성의 연금보유율은 3.9%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전일제 일자리 여성(5.2%)과도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국내 개인연금 가입률이 15.7%[11]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보유율이었다. 저축면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저축을 한 경우는 14.0%로 낮았으며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18.2%)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많은 중고령 여성들이 노후생활준비를 하지 못한 채 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경우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서도 경제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상태에서 현재의 근로소득이 유력한 소득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고,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하게 되는 결정요인과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5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령층이 근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이 63.6%나 되었으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전체 여성에 비해 많았고 여성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도 절반을 넘었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중고령 여성의 60% 이상이 초졸이하의 저학력자로 전체 고령층에 비해서도 학력수준이 매우 낮았고, 이들의 직전 일자리형태는 비임금근로에서 시간제 일자리 근로를 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아 인적자본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이들의 다른 가족원을 통한 가구소득은 연평균 1,623만원으로 월 135만원 남짓한 수준이었으며, 주택소유율은 전체 고령층의 3/4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가구소득이나 주택자산이 취약한 중고령 여성에게 본인의 근로가 현재의 생활유지에 중요한 수입원이 됨을 짐작케 한다. 이들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업종면에서는 60%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독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종에서도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었으며 절반가까이가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48만원으로 전체 시간제 임금수준의 3/4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중고령 여성의 경우 본인의 현 근로소득이 생활유지에 중요한 반면, 비전문·저숙련·영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등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아 임금수준이 낮은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들 중고령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특성 요인들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모두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직

전 일자리형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모두 시간제 일자리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 통제시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전 일자리형태만이,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별 변인은 직전 일자리형태로 나타났다.

현 시간제 일자리 직전의 일자리형태가 전일제 임금근로일 경우보다 시간제근로일 경우와 비취업일 경우에 중고령 여성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유의미하게 높아 직전 일자리형태가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의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노동시장의 분절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고령화되면서 시간적, 신체적 여유를 갖기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보다는 전일제 일자리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대안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업종은 농림어업·광업·제조업에서 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기타 업종에서 시간제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특정 일부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에 비해 30인 이상인 경우는 시간제 근로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는 규모가 적은 영세한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된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도를 전일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현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며, 이를 뒷받침할 가구재산이나 주택, 공적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의 여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후준비면에서의

취약성은 현재의 노후생활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의미하며,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의 질은 이들의 노후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실적으로 노동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인적자본 수준이 상당히 낮은 중고령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고,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노후소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자리의 질이 낮은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결국 노동시장 내 연령별, 성별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빈곤 여성노인층 규모를 확대하게 될 뿐일 것이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는 시간제 일자리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며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장치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 중 하나로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15세-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0대, 40대의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간제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임을 고려할 때 정책대상의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보다는 생계를 위한 노후소득원 보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저소득 집단이므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울산매일 2014.7.14.일자 기사  
 [2] 김복순, “여성 시간제 근로의 현주소”, 월간 노동리뷰, 2013년 10월호, 2013.  
 [3]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행복 키우고 희망 더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노사발전재단, 2013.  
 [4] B. Gannon and J. Roberts, “Part-time work and

health among older worker in Ireland and Britain,” *Applied Economics*, Vol.43, pp.4749-4757, 2011.  
 [5] 김복순,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구조 및 소득”, 노동리뷰, 10월호, 통권 115호, 2014.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012.  
 [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3  
 [8] 성재민,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함의”, 월간노동리뷰, 2014년 6월호, 2014.  
 [9] 신경아, “시간제 노동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제30권, 제1호, 2014  
 [10] 현대경제연구원,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경제주평*, 통권 546호, 2013.  
 [11] 한국일보, 2014.11.7.일자 기사  
 [12] 성지미, 안주엽,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6권, 제1호, 2006.  
 [13] 장혜경, 김영란, *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3.  
 [14] 박성정, 오은진, 김미경, 박성희, *고령층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15] 손정현, 이영민, “중고령 여성인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8권, 제4호, 2011.  
 [16] 성지미, 안주엽, “시간제근로에서 자발성과 일자리만족”, *노동경제논집*, 제30권, 2007.  
 [17] J. Rife, “Mental Health Benefits of Part-Time Employment: A Case Study,” *Clinical Gerontologist*, Vol.24, No.3/4, pp.166-188, 2002.  
 [18] J. Abhayaratna, L. Andrews, H. Nuch, and T. Podbury, *Part Time Employment: The Australian experience*, *Staff Working Paper*, Melbourne: Productivity Commission, 2008.  
 [19] 안미보, 반정호, “여성의 단시간 근로: 그 선택과 동기”, *노동리뷰*, 11월호, 통권 35호, 2007.  
 [20] 이승렬, 조수기, *중고령자의 건강과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 [21] H. Buddelmeyer, G. Mourre, and M. Ward-Warmedinger, Part-Time Work in EU Countries: Labour market mobility, entry and exit, Discussion paper series no. 1550. Bonn: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IZA), 2005.
- [22] 류정진, “장애인의 시간제 일자리 선택 및 근로 시간 연장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제53권, 제1호, 2014.
- [23]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2008.
- [24] 박현식,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권, 2012.
- [25] 박창제, “베이비부머와 전(前)베이비부머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63호, 2014.
- [26]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노인의 과거 노후 준비 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통권 58호, 2012.
- [27] 권혁창, 송현주, 이은영, 임란, 박소현, 정희수, 제 4차(2011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연금연구원, 2012.
- [28] 통계청,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011.
- [29] 백은영, “은퇴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2호, 2008.
- [30] 나지나, 백승애, 신은경, 김미혜, “결혼체제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2010.
- [31] 이신영,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2009.
- [32]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

저 자 소 개

김 소 희(So-Hee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9년 4월 ~ 2011년 2월 : 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전임강사
  - 2013년 3월 ~ 2014년 현재 :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박 미 현(Mee-Hyun Park)

정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6년 3월 ~ 2014년 현재 :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 고용복지